‘성진회’ 최연소 회원, 15살 정우채

노성태 원장의 남도인물열전

〈89〉 정우채



회갑 당시의 정우채



정우채 고향 집 사랑채(나주시 반남면 성내마을)

광주고보에 합격하다

1926년 11월3일 광주고보생 최규창의 하숙집에서 결성된 광주 최초의 학생 비밀결사 성진회는 3년 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한 핵심 단체였다. 결성 당시 15명 회원 중 최연소는 광주고보 1학년 15살 정우채였다.

성진회 최연소 회원 정우채(鄭禹采, 1911-1989), 그는 1911년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에서 정순규와 전의 이씨 사이의 11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반남면 신촌리는 4-5세기 나주 영산강 유역 마한의 중심지로, 마을 인근의 신촌리 9호분에서는 국보로 지정된 금동관이 출토됐다. 본관은 하동(河東), 호는 금하(錦下)다. 부친 정순규는 60여 두락의 농토를 경작하는 비교적 부농이었고, 지역의 유지이자 지도자였으며 시인이었다.

정순규는 부친 정복현이 1908년 안채에 건립한 남화학당(南華學堂)에 이어 ‘후진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1923년 마을 정자인 반계정에 근대 교육 기관인 반남학술강습소를 개설했다. 반남학술강습소는 반남공립보통학교를 거쳐 반남초등학교로 이어진다.

정우채는 어린 시절 부친으로부터 한문을 읽힌 후 반남학술강습소에서 한학과 더불어 근대 교육을 배운다. 당시 강습소의 교사는 친외숙인 이용의였는데, 조카 정우채가 너무도 빼어나게 잘하는 것을 오히려 걱정했다고 한다.

이용의는 한말 나주에서 거병한 의병장 심산 이교민의 아들이었다. 즉 정우채는 반남학술강습소에서 이용의로부터 외조부의 의병 이야기를 듣고 민족의식과 애국정신을 마음속에 심을 수 있었다.

정우채는 13살 무렵 10리밖에 있던 나주공산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한다. 그런데 일본인 교장이 **“일본의 천조대신(天照大神, 일본 왕실의 조상신)이 단군 성조(聖祖)의 형님”**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자, 이에 반발해 교장 배척 운동을 전개했다. 결과는 강제 휴학이었다. 그리고 나주보통학교 4학년으로 편입했다가 이듬해인 1926년 4월, 호남의 영재들이 모인 광주고등보통학교(광주고보)에 입학한다. 그의 나이 15살이었다.

도내의 수재들만 모이는 광주고보 입학은 집안의 큰 경사였다. 부친은 친구가 경영하던 양동시장 근처의 남평여관에 하숙을 정했다. 하숙비는 월 11원이었는데, 당시 나락(벼) 한섬이 7-8원 하던 때였다.

저항시 ‘단결하자’를 쓰다

정우채의 광주고보 시절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광주고보에 입학하기 전 전남 곳곳에서는 소작쟁의가 발생했고, 1924년 야구 경기로 야기된 광주보고의 맹휴 투쟁의 생채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광주고보에 입학하던 그해 6·10 만세운동이 일어나 한국인 학생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청운의 꿈을 안고 광주로 유학 온 정우채는 친구들을 사귀는 등 학교생활에 충실했다. 그리고 한문 교사였던 송홍 선생의 한국사 강의에 큰 감동을 받는다. 송홍 선생은 수업 도중에 **“문을 닫으라”**고 한 후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강의했다. 송홍 선생의 역사 강의로 한국 역사를 말살하려는 일제의 흉계를 깨닫게 됐고,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된다.

당시 광주고보생들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민족 신문의 열렬한 구독자였다. 정우채도 고향에서 부쳐오는 용돈을 쪼개 조선일보를 구독했다. 그리고 9월, 조선일보의 학생 문단에 정우채가 투고한 ‘단결하자’라는 저항시가 실린다.

당시 모윤숙, 신석정 등의 글이 실린 조선일보 학생 문단은 작품 발표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다.

“나는 보았노라. 약한 개미의 단결력을, 단결력이 무엇보다 큰 것을…”으로 시작되는 ‘단결하자’라는 저항의 의미가 담긴 시가 실리자, 시라이(白井) 교장과 일본인 담임은 **“무슨 뜻으로 썼느냐?”, “다시 시를 발표하면 퇴학시키겠다”**며 호되게 꾸짖었다.

‘단결하자’라는 시로 인해 정우채는 상급 학생들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지게 됐고 학교 안에서는 제법 유명 인사가 된다. 선배들의 눈에 띈 1학년 정우채는 1926년 11월3일, 성진회 결성의 최연소 발기인으로 초대받게 된다.

성진회 최연소 회원이 되다

1926년 11월3일, 광주고보생 최규창의 하숙집 진남여관에서 광주고보생 왕재일·장재성, 광주농업학교생 박인생·문승수 등 총 15명이 비밀결사 ‘성진회’(醒進會)를 결성했다. 그 자리에 초대된 최연소 발기인이 이미 언급한 광주고보 1학년 15살 정우채였다.

비밀결사의 이름 성진회는 ‘홀로 맑고 홀로 깨어 있다’는 뜻의 ‘독청독성’(獨淸獨醒)과 ‘진격진군’(進擊進軍)에서 따 왔다. 총무에는 이름을 제안한 왕재일, 서기에는 박인생, 회계에는 후일 독서회중앙부 책임비서가 된 장재성이 선임됐다. 이때 **“우리는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쟁취한다. 일제의 식민지 노예교육을 절대 반대한다.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요구한다”**가 강령으로 채택됐다.

정우채는 후일 광주학생독립운동 증언집 ‘타오르는 횃불’에서 **“박인생은 이론이 뚜렷했고, 장재성은 조직력이 훌륭했다. 키가 작고 온후한 성격인 왕재일은 강직한 면도 지니고 있었다”**는 평(評)을 남긴다.

이름이 정해지고, 임원이 선출되고, 강령이 채택되는 등 모든 것이 결정되자, 15명 회원은 춘원사진관(금남로 4가 81번지)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성진회는 결성 5개월 만인 이듬해 3월, 정남균의 집에서 형식상 해체한다.

핵심 회원 장재성·왕재일·박인생의 졸업도 한 원인이었지만, 회원 중 한 사람이 광주경찰서 민완 형사와 인척 관계임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성진회는 학교 단위로 활동을 계속했고, 1929년 결성된 학교별 독서회로 이어졌다.

성진회 회원들은 1929년 11월3일, 12일 광주에서 발발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동력이었다.

이는 1928년 이경채 사건으로 야기된 광주고보생들의 대 맹휴 투쟁 당시 성진회 회원이었던 최규창 등이 격문 작성과 등사 등 주요 역할을 맡았고, 11월3일의 오후 시위와 12일의 2차 시위를 주도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우채가 성진회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 왕재일과의 만남 때문이었다. 정우채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조선일보를 구독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배달하던 학생이 광주고보 5학년 왕재일이었다.

구례의 선비 집안 출신의 왕재일은 신문 배달을 하며 광주농업학교 학생들과도 사귀는 등 폭넓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일보에 ‘단결하자’라는 시가 실린 이후 왕재일과 가까워졌고, 정우채의 신념과 의지를 높게 산 왕재일이 성진회 회원으로 추천한다. 정우채가 15살 최연소 나이로 성진회 회원이 될 수 있었던 연유다. 이후 두 사람은 평생 동지가 된다.

광주고보 대 맹휴투쟁을 주도하다

정우채가 광주고보 3학년이던 1928년, 이경채 격문 사건을 계기로 광주고보에서는 ‘대 맹휴’가 촉발됐다. 격문 살포를 주도한 이경채가 체포되자, 학교 당국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경채를 권고 퇴학시켰다. 이에 4·5학년 학생 대표 11명은 퇴학 사유에 대한 학교 측의 해명을 요구했고, 6월24일 학부형대회 석상에 진정서를 배포했다.

이에 맞서 학교 당국이 11명에게 근신 처분을 내리자, 6월26일 2·3·4·5학년 학생들은 시라이 교장에게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현에 관한 건’, ‘물리·화학 교실을 신축할 사’ 등 6개 항의 요구사항을 요청하며 맹휴에 돌입했다.

학생들이 맹휴에 돌입하자 학교 당국은 이튿날 바로 맹휴 주동 학생 27명을 퇴학시키고, 281명을 무기정학에 처했는데, 27명의 퇴학생 속에 성진회 핵심 회원 최규창과 정우채가 들어 있었다.

이경채 사건으로 퇴학을 당한 정우채는 고향 반남으로 낙향, 금융조합에 다니던 중 광주학생독립운동이 폭발했고, 1930년 1월6일 반남주재소 경찰에 체포된다. 정우채의 체포는 동아일보(1930년 1월 11일자)에 **“반남면 신촌리에 사는 정우채(19세)를 지난 6일 당지 주재소(반남주재소)에서 검거해 광주경찰서로 호송한 일이 있다는데(중략), 사건 내용은 광주학생사건에 관계가 있다 하여 그와 같이 검거한 것”**이라고 실리기도 했다.

성진회 결성에 참여한 그에게 광주지방법원은 치안유지법을 적용, 징역 2년을, 대구복심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출옥 이듬해인 1932년 부친이 주재하고 있던 ‘반양시사’의 시회(詩會)에 객으로 참석한 후 읊은 시 **“지식인 노릇하기 참으로 어려운 세상, 돌아와 농부돼 밭 갈고 싶소(處世難持書士道, 居村無妨野人耕)”** 속에는 지식인으로서의 고뇌가 묻어 있다.

그는 농부가 됐지만, 지식인으로서의 본분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고향 반남에서 마을 청년들과 함께 자미사(紫微社)를 결성, 농민야학 운동과 더불어 어린이 잡지 ‘아히(이)생활’의 동인으로 활동한다.



동인으로 참여한 잡지 ‘아이생활’

광복 후 정우채는 진보적 신문인 호남신문의 논설위원이 된다. 이때 성진회 멤버였던 최규창은 기자가 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이후 정우채는 세계통신사 전남지사장을 역임했고 광주학생독립운동사 편찬위원,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이사를 지낸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잉태한 성진회의 최연소 발기인 정우채, 그는 대 맹휴를 주도하다 퇴학당했지만, 평생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꿋꿋한 삶을 살다, 1989년 생을 마감한다.

성진회 최연소 회원 정우채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다음 에피소드에 잘 묻어 있다.

7남매를 두었는데, 4남매의 이름을 ‘조선국민’(朝鮮國民)에서 한 글자씩을 따와 찬조, 찬선, 찬국, 찬민으로 짓고 있다. 큰아들 찬준이 1980년 5·18민주항쟁 직후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전남도지사 제의를 받자, **“네 놈이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라고 호통치며 이를 물리쳤다고 한다.

정부는 1990년, 정우채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한다. 오늘 그가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잠들어 있는 연유다.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장〉



독립지사 정우채 묘소(대전 현충원)



반남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